

따오르누 START Up 랩인바이오



바이-오구오구는 철저한 위생 절차가 기본으로 이뤄진 생산 공장에서 제품 성분 분석을 시작으로 미생물 검사, 품질검사를 통해 만들어진다.



랩인바이오의 바이-오구오구는 안전한 품질 인증과 뛰어난 치석 제거 효과 그리고 높은 기호성을 모두 갖춰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과학적 데이터 기반...반려동물 '구강 건강 지킴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팜족'(Pet+Family)이 늘면서 사료를 넘어 강아지 전용 유산균이나 피부 보습 크림 같은 헬스케어·뷰티 제품군까지 시장이 빠르게 확장되는 추세다.

펫팜족이 늘면서 관련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2022년 62억달러(약 9조 4029억)에서 2032년 152억달러(약 23조 523억)로 145.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성장세 속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반려동물의 통증, 영양상태, 전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구강 위생 관리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치과 질환은 한번 발생하면 회복이 쉽지 않고, 대부분 심한 통증을 동반하면서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데 큰 어려움을 주며, 결국 식욕 저하와 체중 감소, 전신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소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 반려동물의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대한 오랜 기간 연구를 진행하

치아 질환 예방·위생 연구... '바이-오구오구' 개발 소형견·노령견 등 안전한 섭취...치석 제거 효과 ↑ 중국·몽골·일본·말레이시아 등 해외 진출도 본격화



며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스타트업이 있다. '랩인바이오'(LabinBio, 대표 조인아)는 '구강 질환으로 고생하는 반려동물'을 위한 과학적 해결책'을 제시하며 2024년 관련 업계에 첫 발을 뒀다. 치과대학 연구원으로 10여년간 종사했던 조 대표는 치아 연구를 통해 구강암, 치주질환 등에 대한 논문을 준비하며 나온 결과물을 '반려동물에 적용하면 어떻



조인아 대표

까'라는 생각을 했다. 또 조 대표는 천연물질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반려동물의 치아 및 치주 질환 예방과 구강 위생관리에도 연구 확대 적용해 제품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후 지속적인 연구 끝에 조 대표는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반려동물의 구강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성 건강식품인 '바이-오구오구'를 선보였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춘 제품 개발에 집중해 온 랩인바이오의 '바이-오구오구'는 반려동물의 치아 건강을 위해 설계된 덴탈껌이다. 특히 해당 제품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SQF(Safe Quality Foods) 인증을 받았다.

SQF 인증은 지난 1995년 호주에서 처음 개발된 식품을 위한 제품인증 제도로, 전 세계의 소매업체, 브랜드 소유자 및 식품 서비스 제공업체가 인정하는 엄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안전 및 품질 프로그램이다.

해당 제품은 독특한 톱니바퀴 모양 덕분에 치석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설계됐다.

식품용 어묵 제작에 사용되는 '실리움'을 사용하고 인자가 굵은 패각껍질을 통해 물리적 작용을 높여 치석 제거 효과를 극대화했다.

또 제품에 포함된 헥사메타인산염 성분은 치석 재발을 방지해주며 프로폴리스와 민트향 성분은 입 냄새를 없애주는 데 도움을 준다.

여기에 바이-오구오구는 철저한 위생 절차가 기본으로 이뤄진 생산 공장에서

제품 성분 분석을 시작으로 미생물 검사, 철저한 품질검사를 통해 만들어진다.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유해성분을 100% 차단한 살균정화시스템으로 위생적인 제품생산을 비롯해 최첨단 원스톱 공정방식으로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

랩인바이오의 바이-오구오구는 안전한 품질 인증과 뛰어난 치석 제거 효과 그리고 높은 기호성을 모두 갖춘 것이다.

또 소비자 반응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 개선과 신제품 개발에 반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때문에 반려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터며 인기 상승 중이다.

더불어 중국, 몽골을 비롯해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해외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다.

조인아 랩인바이오 대표는 "반려동물은 구강 질환 진행 속도가 빠른 편이지만 스스로 관리가 어려운 만큼 안전성과 기능성을 함께 고려했다"며 "장기간 축적해 온 덴탈 케어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개발 초기부터 반려동물의 구강 환경 분석을 기반으로 제품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정의선 회장 "2030년 휴머노이드 로봇 3만대 생산"

현대차그룹, '세마포 월드 이코노미' 참가·비전 제시 경쟁·혁신 강한 의지... '로보틱스·피지컬AI' 성장 축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서 열리는 '2026 세마포 월드 이코노미'에 참가해 미래 모빌리티와 AI 시대에 필요한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제시했다. 현대차그룹은 전동화와 로보틱스, 수소를 축으로 한 중장기 비전을 앞세워 리더십 강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현대차그룹은 13~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콘래드 호텔에서 열리는 세마포 월드 이코노미에 참여한다. 해당 행사는 미국 디지털 뉴스 플랫폼 세마포가 주최하는 경제 컨퍼런스로,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 선정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와 주요 정책 결정자들이 참석한다.

행사 개막에 앞서 정의선 회장은 세마포 서면 인터뷰를 통해 현대차그룹의 비전을 설명했다. 그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로보틱스 및 AI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 사업, 에너지 전환 등을 주제로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나가는 현대차그룹의 방향성과 경쟁력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우선 최근 국제사회 경영 환경에 대해 "글로벌 시장이 점점 더 세분화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현대차그룹은 유연성과 회복력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을 헤쳐 나가고 있다"며 "그룹의 접근 방식은 글로벌 확장과 지역별 민첩성을 결합하고 있으며 사업을 영위하는 각 지역에서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한국과 미국 공장에서의 하이브리드 제품 생산 확대, 인도 및 아태 지역의 새로운 생산 기지 구축 등을 거론하며, 불확실성 속에서도 현대차그룹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소개했다.

이어 "글로벌 역학 관계는 우리 모두가 헤쳐 나가야 할 과제"라면서 "현대차그룹의 DNA에 내재된 유연성과 회복력 덕분에 위기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경쟁은 혁신을 자극하는 요소"라며 "그런 면에서 현대차그룹은 경쟁을 환영한다"며 경쟁과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도 함께 나타났다.

미래 사업에 대해서는 "로보틱스와 피지컬 AI는 현대차그룹이 모빌리티 분야를

넘어 더욱 진화하는 과정의 중심"이라며 "첨단 AI로 구동되는 협업 로봇과 인간을 연결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구체적으로 "오는 2028년까지 제조 시설에 보스턴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배치하고 2030년까지 연간 최대 3만 대의 아틀라스를 생산할 예정"이라며 "R&D, 소프트웨어 및 AI, 디자인, 첨단 제조 전반에 걸친 그룹의 역량을 활용해 다음 시대로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미래 에너지 전략에 대해 "수소가 글로벌 청정 에너지 전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언급하며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를 향한 비전의 핵심 축으로 수소 에너지를 꼽았다.

정 회장은 전략 시장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 강조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현대차그룹의 비전도 전했다.

현대차그룹은 전략적 투자의 일환으로 지난해 향후 5년간 125조2000억원 규모의 국내 중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 새만금 지역 혁신성장거점 투자 프로



미국 '세마포 월드 이코노미' 행사에 참석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젝트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새만금 지역 112만4000㎡(약 34만 평) 부지에 약 9조원을 투자해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AI 데이터센터, 1GW급 태양광 발전, AI 수소 시티 등 미래 신사업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로봇·AI·에너지 설루션 중심 미래기술 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한편 제네시스는 행사 기간 동안 개최 장소인 워싱턴 DC 콘래드 호텔에서 제네시스의 현대 철학과 럭셔리 브랜드 경험을 선보이는 전용 공간을 조성한다. 제네시스는 지난 2022년부터 세마포의 창립 파트너로 협력해 왔으며, 그동안 제네시스 하우스 뉴욕, 제네시스 스튜디오 취리히 등 브랜드 문화 공간을 활용해 각 분야의 글로벌 리더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스 행사를 펼치는 방식으로 세마포와의 파트너십을 이어 왔다. 이와 함께 세마포 월드 이코노미, 세마포 저널리즘 프로젝트 등을 통해 협력을 확대해 온 제네시스는 올해 하반기에도 세마포와 함께 네 차례 공식 행사를 개최하는 등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